

공공기관이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 나선다

-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AI 활용방안 논의 및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변경에 따른 예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의결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30. (수) 14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하였다.

< 회의 개요 >

- ▶ 일시 / 장소: '25. 7. 30.(수) 14:00~15:00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 참석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7명, 기획재정부 제2차관(정부위원)
- ▶ 논의사항: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일부개정안 등

<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 >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AI 활용 동향과 주요 사례를 보고받고,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되어 민간 AI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공공기관 AI 활용 동향 및 주요 사례 >

- ▶ AI 활용동향: 132개(343개의 38.4%) 기관에서 총 381건의 AI 활용·구축 중
 - (기관별) 공기업 23개(74.2%), 준정부 44개(73.3%), 기타 65개(25.8%)
 - (분야별) 고용복지(12.1%), 에너지(9.7%), 산업/연구(9.4%), 공공안전/금융(9.2%)
 - (활용별) 생산향상(47.0%), 재난·안전(15.0%), 민원·상담(10.8%), 생활·이용편의(9.4%)
- ▶ AI 활용사례: 생산성 향상, 안전업무 활용, 서비스 질 제고 위주로 AI 활용
 - (생산성) ^{근복}산재보험 AI 의학자문, ^{수공}스마트 물관리, ^{무보}대외거래 위험지수 산출
 - (안전) ^{한전}재해재난 감시·대응, ^{남동발전}위험지역 순찰, ^{산안공}위험사업장 선별
 - (고객만족) ^{신보}기업분석·진단, ^{건보}자동상담봇, ^{기보}R&D성과·사업수요 매칭

한편, 위원들은 공공기관 종사자(3,027명)들이 참여한 AI 활용 인식도 조사 결과(별첨)를 바탕으로 생산성·안전관리 분야 중심의 AI 활용, 기관별 차별화된 정책지원, 공공기관간 협업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AI 전문기관(NIA^(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KISA^(인터넷진흥원))으로 구성된 AI 서포터즈와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AI 도입을 자문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둘째, AI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여 공동 활용을 확산하는 등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포함하고, AI 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여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넷째, 연내 AI 활용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기술마켓 내에 'AI 전용관'을 신설하여 활용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하며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AI 활용 문화를 확산한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정책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 >

이와 함께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조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대법원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24.12.)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이 증가하여 불가피한 총인건비* 증가소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 총인건비 관리제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 대비 인상률('25년 3.0%) 한도내 관리중으로 기관은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

이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❶통상임금 소송결과가 있거나, ❷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임을 확인한 경우, 그로 인한 법정수당 증가분은

중전 '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3.0%)을 초과하여 편성·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조치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된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510)
		담당자	사무관	전유석 (hunge1138@korea.kr)
	공공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정윤 (044-215-5530)
		담당자	사무관	송준식 (junsics@korea.kr)
	공공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철규 (044-215-5610)
		담당자	사무관	신동호 (rain0136@korea.kr)



참고 1

AI 활용 관련 공공기관 인식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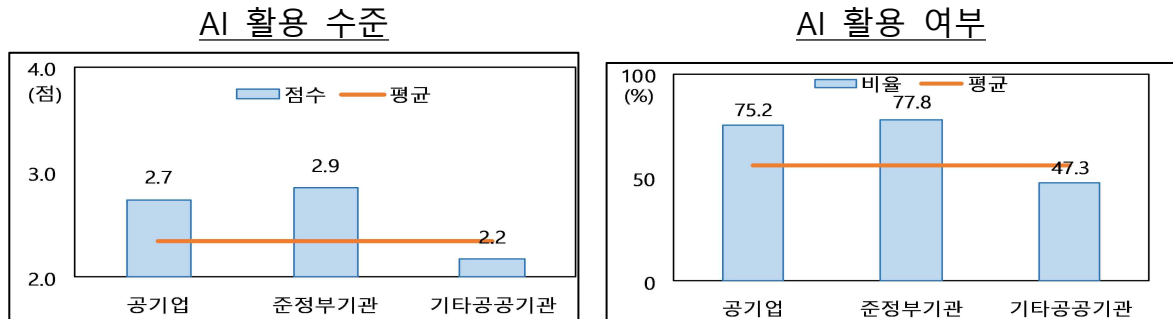
◇ (설문대상) 공공기관(248개), 종사자(3급이하) 3,027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 (설문측정) 총 19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측정 방식 적용 산정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다소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① (AI 활용수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심으로 AI를 활용 중이며, 활용 수준은 챗봇 등 초기 단계로 높지 않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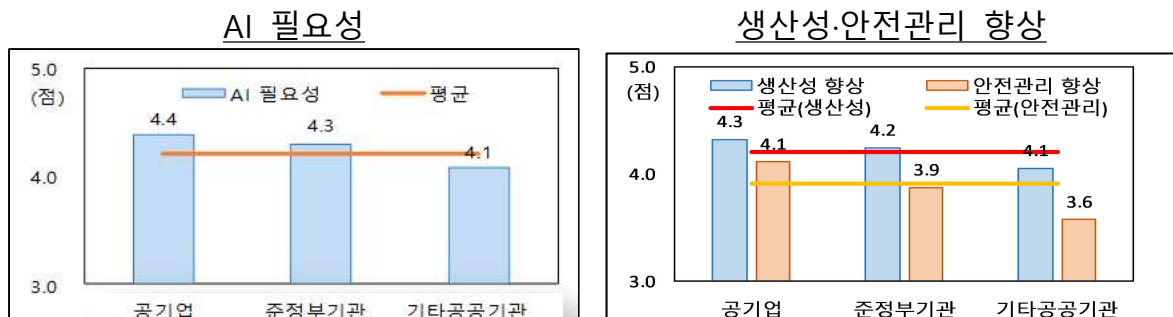
* 공기업·준정부기관 활용 수준 평균(2.74/2.85)이 기타공공기관 평균(2.17)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회(1% 신뢰수준)



② (AI 활용전망) 대체로 AI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 대비 AI 활용에 긍정적 인식을 보유

* AI 활용 필요성 관련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균(4.38/4.29)이 기타공공기관 평균(4.07)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회(1%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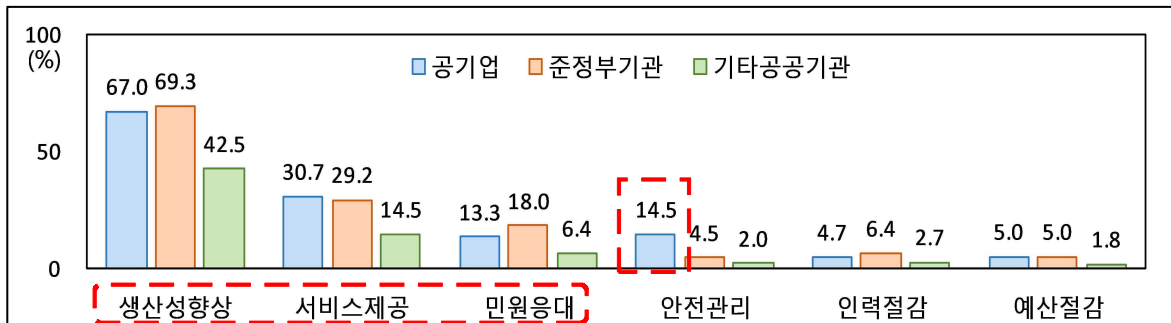
** AI 활용이 생산성 향상과 안전관리 제고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긍정적 기대가 기타공공기관의 긍정적 기대를 1% 신뢰수준에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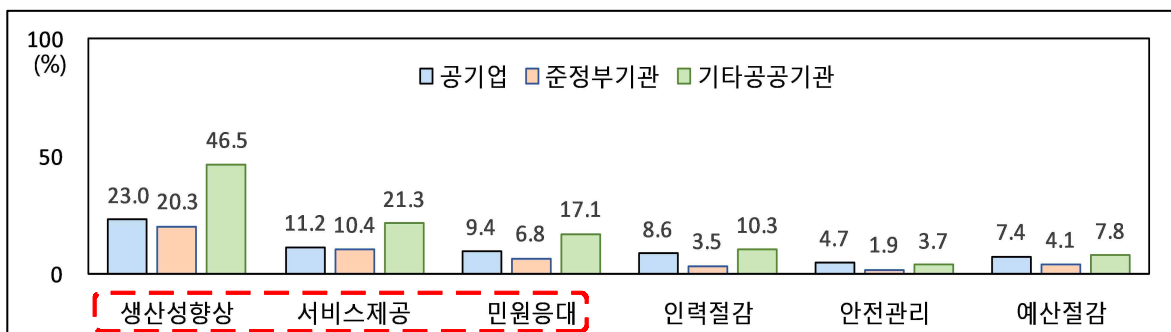
③ (AI 활용유형) 생산성 향상, 서비스 제공, 민원응대 중심으로 AI 활용 중, 미래 AI 활용유망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인식

○ 특히, 공기업은 타 공공기관 유형 대비 안전관리 분야(14.5%) AI 기술 활용 비중 高

AI 활용 분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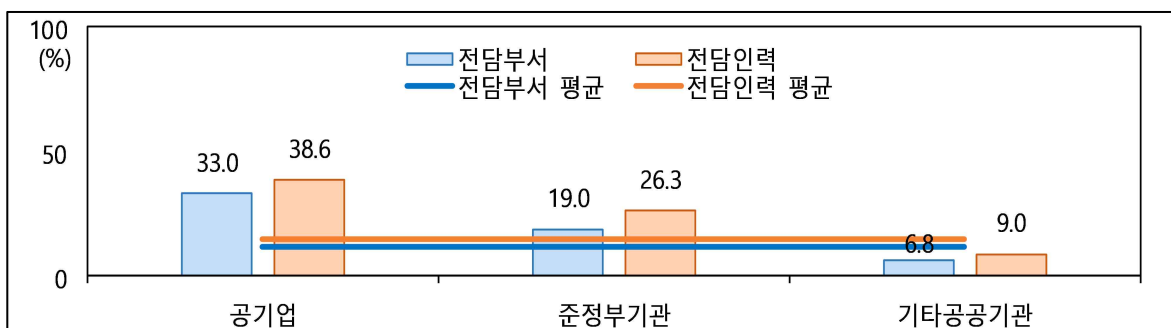


AI 활용 분야 :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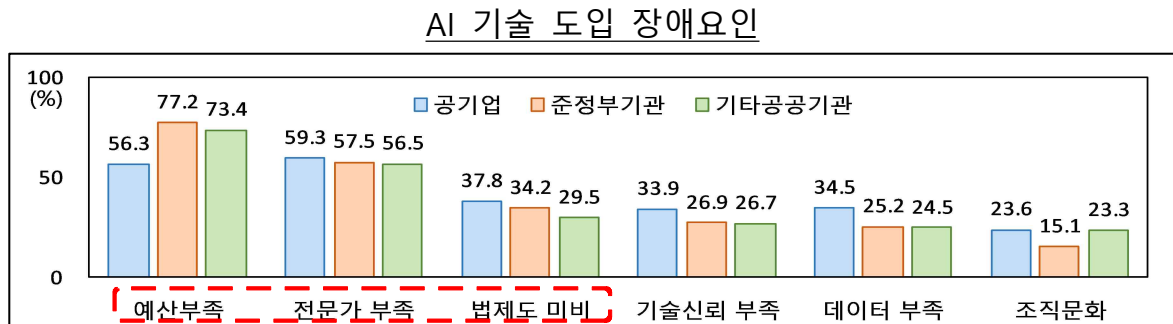


④ (AI 전담인력·부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심으로 AI 전담인력·부서 운영 중, AI 전담 인력·부서 설치율은 절반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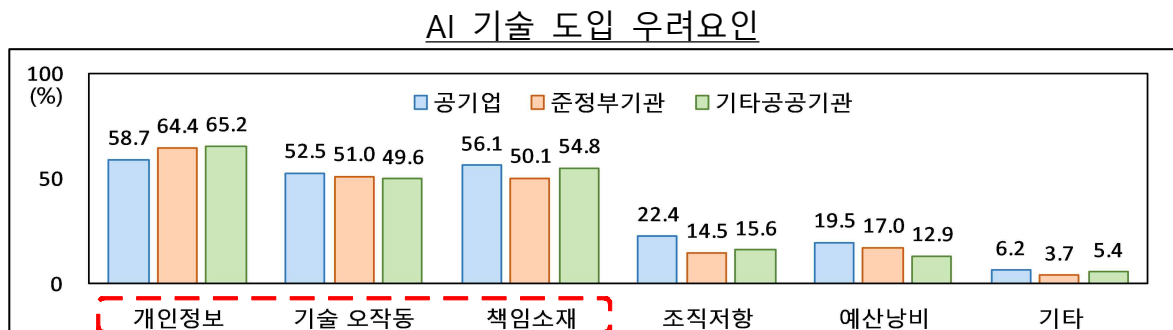
AI 전담인력·부서 유무



- 5 (AI 활용 장애요인) 공기업은 인력 부족, 준정부·기타공공기관은 예산부족을 주된 AI활용 장애요인으로 인식



- 6 (AI 활용 우려요인) 개인정보 유출, 기술 오작동, 책임소재를 AI 도입의 주요 우려 요인으로 인식



- 7 (협업 · 데이터) 협업 필요성에 공감 중이며, 특히 공공기관간 협업을 우선시. 다만, 기관보유 데이터를 AI에 바로 활용하기는 미흡하다고 인식 중



참고 2

공공기관 AI 활용 사례

- ◇ 공공기관은 생산성 향상, 안전업무 활용, 서비스 질 제고 등에 인공지능 활용중
- **(생산성)** 근로산재보험 AI 의학자문, 수공스마트 물관리, 무보대외거래 위험지수 산출
 - **(안전)** 한전재해재난 감시·대응, 남동발전위험지역 순찰, 산업공위험사업장 선별
 - **(고객만족)** 신보기업분석·진단, 건보자동상담봇, 기보R&D성과-사업수요 매칭

1. (생산성)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AI 의학 자문

- **(기술내용)** 상병코드, 연령대, 성별, 병원 정보 등(23개 변수) 특성이 유사한 산재환자(30명이상) 요양기간을 분석하여 요양일수 예측



- **(기대효과)** 산재 처리기간 단축(5일→1일), 의사결정의 일관성 향상

2. (안전) 한국전력공사 재해재난 조기대응 시스템

- **(기술내용)** 감시카메라(실+열화상), AI 기반 분석장치(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실시간 재해재난 종합감시 및 정보 공유



- **(기대효과)** 재해재난 조기대응, 보유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3. (고객만족) 신용보증기금 데이터기반 기업분석·진단

- **(기술내용)** 업무상 보유한 기업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뢰기업의 경영진단, 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등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기업경영 개선, 정부·지자체 기업지원사업 효율성 제고